

#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본 뉴어바니즘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도시 사업에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은평 뉴타운 1지구 개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New Urbanism and our country  
in a new city business seen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 Focus on Eunpyung Newtown No. 1 District -

**박 종 현** | Park, Jong-Hyun

정회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계획전공, 박사과정

**이 종 렬** | Lee, Jong-Ryul

정회원, 경민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교수, 건축학박사

---

## Abstracts

Planning a major change in the domestic residential complex 'complex' in the 'city' to the influx of urban space. So, considering a set of self-environmental complex of openness and connectivity between cities inflow from residential urban housing is formed.

Complex-oriented development approach and apartment high-rise and high-density regions of space and social disconnection that causes a uniform methodology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plan, however, a recent New Urbanism New Urbanism has been introduced. And intravenous forms of communal life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prior to World War II, this value is based on the main form. Design reorganizes This modern lifestyle factors (such as housing, jobs, shopping, leisure space) to go back to the traditional lifestyles while Neotraditional Planning exercise. New Urbanism in the late 20th century, some literature refers to a postmodern approach adopted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the specific case. Actually important feature of post-modernism in the New Urbanism has been expressed. Problem is very confusing, and the principles of New Urbanism, New Urbanism, even those who claim that have different social and design view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ostmodern tendencies of the New Urbanism, and based on this, the pos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in Korea mainly affected on the theory of New Urbanism in South Korea in Eunpyeong examine.

---

## Keywords

New Urbanism, Postmodernism, Modernism, Eunpyung Newtown

## 키워드

뉴어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 은평뉴타운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주거단지 계획의 주요 변화는 '단지'에서 '도시'로서 도시공간의 유입에 따른 단지의 개방성 및 주변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기 환경적인 집합주거에서 도시성의 유입에 따른 도시주거의 형성이다.

그러나 기존의 단지위주 개발방식과 고층 고밀 아파트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단절을 야기시키는 등 획일적인 주거계획을 고착화 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최근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에서 성행했던 정주형태와 함께 살아왔던 생활양식에 주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현대적 생활요소들(주택, 직장, 쇼핑, 여가공간 등)을 설계적으로 재편성하여 전통적 생활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 Planning)운동이다. 일부 문헌들은 20세기 말 도시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뉴어바니즘을 도시계획 분야에 포스트모던한 접근이 채용된 구체적 사례로 언급한다.<sup>1)</sup> 실제로 뉴어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들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뉴어바니즘의 원칙이 매우 혼란스러운데다, 뉴어바니즘을 주창하는 논자들마저도 상이한 사회적·설계적 인식과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뉴어바니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뉴어바니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그 기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어바니즘이 갖고 있는 도시개발적 전략과 목적은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곽으로 팽창하는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한 전통적 생활양식으로서의 회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적 복고주의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내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은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어바니즘이 갖고 있는 도시개

발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보다 분명한 구분을 위하여 모더니즘적 특성들을 함께 나열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신도시중 하나인 은평 뉴타운을 중심으로 그 특성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신도시의 적용가능성과 그 기능적 실효성 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 2. 뉴어바니즘의 정의

### 2.1 뉴어바니즘의 배경

모더니즘에 기초한 도시는 단일용도의 토지이용,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슈퍼블럭(superblock), 공원위의 타워 기법(tower in the park)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도시는 사람보다 자동차 위주의 도시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교통행태를 변화 시켰다. 자동차 위주의 도시는 더 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심각한 스프롤(Sprawl) 현상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근대 도시계획 개념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1991년 아와니(Ahwahnee) 원칙을 기점으로 뉴어바니즘이 미국에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1993년 10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170명의 미국의 설계가와 많은 개발 전문가들이 첫 번째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의 물장소성, 중심도시의 쇠퇴, 커뮤니티 내 인종·소득계층별 분리현상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그리고 자동차 위주의 개발이 부른 환경파괴 등을 우려했다.

이 회의에서 변화하는 가족구성, 자연적 특성이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 저밀도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인간육구에 무감각한 가로기준, 지역의 기후와 전통을 무시한 채 모든 커뮤니티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용도지역지구제 등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터 칼썸(Peter Calthorpe), 앙드레 듀아니(Andres Duany), 엘리자베스 몰(Elizabeth Moule), 엘리자베스 플래터-지버크(Elizabeth Plater-Zyberk), 스테파노스 폴리조이데스(Stefanos Polyzoides), 다니엘 솔로몬(Daniel Solomon) 등 여섯 건축가들이 뉴어바니즘 원칙과 커뮤니티 형성방식의전반적인 변화를 주창하는 비영리 조직인 뉴어바니즘 협회<CNU-Congress for the New Urbanism>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뉴어바니즘 협회(CNU)는 도시중심을 복원하고, 확

1) Ellin, 1996, Oranje, 2002, Moule, 2003

2) Burns, C. et al, Urban or Suburban?, Harvard Design Magazine, 1. 1997

산하는 교외를 재구성하고,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전통적인 유산을 보존하는 운동들을 지지한다.

또한 이 협회는 건축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술자, 계획가, 공무원, 사회운동가 그리고 개발업자들과의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현재 뉴어바니즘의 여러 활동들을 주관하며, 뉴어바니즘을 새로운 도시계획개념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뉴어바니즘 이전에도 제시되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개념을 새로이 고안한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홍보하는데 기여하는 조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 2.2 뉴어바니즘의 도시조성 원리

뉴어바니즘에서 주장하는 원리들은 1996년 협회 회원들이 채택한 헌장(Charter of the New Urbanism)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뉴어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기본 원리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Walkability), 연계성(Connectivity), 복합용도 및 다양성(Mixed-Use & Diversity), 주택의 혼합(Mixed Housing), 건축과 도시설계의 질(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 전통적인 근린구조(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고밀도(Increased Density), 스마트 교통체계(Smart Transporta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뉴어바니즘은 전통적인 근린주구 구성기법을 근거하며 TND, TOD, MUD<sup>3)</sup> 중심의 개발경향을 가진다. 또한 뉴어바니즘 헌장에서 나타나듯이 위계별로 대도시권(Metropolis) - 도시(City) - 타운(Town) - 근린주구(Neighborhood) - 구역(District) - 주요이동로(Corridor) - 블록(Block) - 가로(Street) - 건물(Building)로 분류하고, 이러한 위계에 해당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설계 원칙을 제안한다.

3)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통적인 근린에 근거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말함(전통도시에서 볼 수 있는 긴밀하게 연결된 도시조직을 적용),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대중교통 지향적인 개발을 말함(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MUD**(Mixed Use Development): 복합용도개발을 말함(보행거리내에 상업, 업무, 위락, 주거시설 등의 용도를 혼합)

표 1. 뉴어바니즘의 기본 원리

(출처: <http://www.newurbanism.org>에서 Andres Duany의 글을 정리)

목 표	세 부 내 용
1.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환경 (Walk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과 직장은 걸어서 10분 이내</li> <li>• 보행자에게 친근한 가로 디자인</li> <li>• 차로부터 자유로운 보행 가로</li> </ul>
2. 연계성 (Conne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되어진 교통과 쉽게 걸을 수 있는 상호 연결된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li> </ul>
3. 복합용도 및 다양성 (Mixed-Use & D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상복합</li> <li>• 근린주구와 블록 그리고 빌딩 내에서의 복합용도</li> <li>• 사람들의 다양성(나이, 계층, 문화, 인종)</li> </ul>
4. 주택의 혼합 (Mixed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범위 내의 주택의 유형, 규격, 규모</li> </ul>
5. 건축과 도시설계의 질 (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움, 편의성 그리고 장소성의 창출 강조</li> </ul>
6. 전통적인 근린구조 (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과 경계의 명확성</li> <li>• 중심에 공공공간 마련</li> <li>• 공공영역의 질의 중요성</li> <li>• Transect Planning</li> </ul>
7. 고밀도 (Increased Den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빌딩, 주거, 상점과 서비스 시설을 같이 입지시키는 것은 보행의 증대, 서비스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편리성 제공</li> </ul>
8. 스마트 교통체계 (Smart Transpor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타운, 근린주구를 모두 연결시키는 고도로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li> <li>• 보행자에게 친근한 디자인</li> </ul>
9.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li> <li>• 에너지효율 증대</li> <li>• 보행위주</li> </ul>
10. 삶의 질 (Quality of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장소를 만듦으로 높은 삶의 질</li> </ul>

## 2.3 뉴어바니즘의 도시 사례

### (1) Seaside

Seaside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80Acres 정도의 면적과 인구 2000여명을 수용하는 작은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해변도시는 New Urbanism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도시는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을 모아왔고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건축가 Andres Duany와 Elizabeth Plater-Zyberk는 도시계획 개념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를 강력히 근린

의식을 추구하는데 두었다. 이것은 그 동안 교외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기존도시와 다르게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된 설계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공간의 확보이후 지침에 따라 개별 건물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교외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공공간의 침식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Seaside의 컴팩트한 배치는 “five minute walk”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약 400m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이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거리 안에 두어서 도보권 안에서 친밀한 장소를 창출하였다. 이것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며 더 나아가 거주자들의 활발한 사회적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 Seaside의 Master Plan 및 전경

표 4. Seaside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p>간선가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중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변 중심지 형성</li> <li>- 방사형의 도로체계로 인해 중심성 증가</li> <li>- 세부가로의 격자패턴 경관을 고려한 도로체계</li> <li>- 명확한 경계가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nsect에 의한 토지이용</li> <li>- 간선도로변에 상업, 공공서비스로 중심지 형성</li> <li>- 오픈스페이스 축을 형성하며 주거지와 중심지 연결</li> </ul>

## (2) Kentlands

Kentlands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23마일 떨어진 Gaithersburg에 위치하며, TND(전통적 근린주구 개발)원칙을 처음으로 실현한 곳으로 고전 미국 전통 양식의 독특한 근린주구 형태로 만들어져 New Urbanism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

Andres Duany와 Elizabeth Plater-Zyberk이 마스터플랜을 설계한 이 공동체는 6개의 근린주구가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공공시설과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호수와 습지 보호구역은 근린주구 지역을 한정하며, 영역을 나누고 있다.



그림 3. Kentlands의 Master Plan 및 전경

표 5. Kentlands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p>중심지의 상업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선의 축을 형성하면서 중심과 부중심 연결</li> <li>- 두 간선가로가 만나는 교차점을 중심으로 간선가로변 상업시설 입지</li> <li>- 명확한 경계가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nsect에 의한 토지이용</li> <li>- 대규모 쇼핑지구 형성</li> <li>- 중심과 부 중심 사선의 축 형성하며 연결됨</li> </ul>

(3) Laguna 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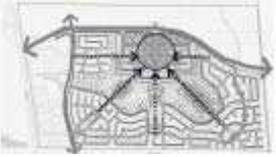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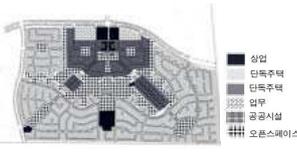
Laguna West는 Sacramento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있는 큰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미국 마을을 재현하고 있다.

Laguna West는 TOD(대중교통지향개발)원칙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Laguna West의 계획 개념은 지역의 실제 토지시장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져다주었고, 지역의 84% 거주자들이 기존의 필지분할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공공간의 확보 및 보행자 위주의 개발을 찬성하였다.



그림 4. Laguna West의 Master Plan 및 전경

표 6. Laguna West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p>중심지의 커뮤니티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변 중심지 형성</li> <li>- 방사형의 가로체계로 중심성이 매우 강함</li> <li>- 방사형의 가로체계는 호수 경관을 고려함</li> <li>- 명확한 경계가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nsect에 의한 토지 이용</li> <li>- 중심지와 주거지 오픈스페이스로 사선을 축을 형성하며 연결</li> <li>-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 뛰어난 경관 창출</li> </ul>

3. 뉴어바니즘에 관한 현재의 시각

3.1 뉴어바니즘의 근거

뉴어바니즘의 설계원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뉴어바니즘의 원칙들은 하워드, 클라런스 페리 (Clarence Perry), 제이콥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그리고 도시미화운동이 이미 주장한 개념들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이다. 하워드가 주창했던 전원도시의 흔적은 도보권 개념, 사적인 공간에 우선하는 공용용지의 확보, TOD 개념과 교외지역간의 철도 연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녹지로 구분된 경계부(Edge)는 그린벨트를 연상시킨다.(Fleming, 1998) 페리로부터는 근린주구 및 생활권과 도보권 개념, 근린주구 중심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개념이 차용되고 있으며, 제이콥스의 다양성의 추구를 위한 용도의 혼합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알렉산더로부터는 점진주의(piecemeal growth)와 층진식 개발 개념이 수용되고 있으며(Alexander et. al, 1988), 도시미화운동으로부터는 건물 외관의 중시와 시빅센터 및 지역사회 의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있다.(박영춘, 임경수, 2000). 또한 이들 논자들은 대체로 저밀도보다는 고밀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뉴어바니즘의 원칙은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 설계원칙들을 알 수 있다.

뉴어바니스트들은 실체가 인간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뉴어바니스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는 인간소외의 문제, 계층 및 인종간의 갈등, 환경문제 등으로,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뉴어바니즘이 지향하는 설계원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설계를 통한 공동체의 건설은 뉴어바니즘이 지향하는 사회적 지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뉴어바니즘이 이전시대의 도시계획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환경결정론적(environmental determinist) 시각에 기초한 설계적 접근임을 알 수 있다. 즉, 설계를 통해 사회와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결정론적 시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모더니즘적 전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도시설계를 통해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표출된다.

### 3.2 뉴어바니즘의 모더니즘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

뉴어바니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후에서는 뉴어바니즘에서 표출된 특징들을 모더니즘의 측면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뉴어바니즘의 모더니즘적 특징

뉴어바니즘은 공동체의 건설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Harvey,1997; Fainstein, 2000). 이와 같이 사회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모더니즘적 접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이상도시나 하워드 의 전원도시운동에서 채용된 설계적 요소들은 모두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들이다.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구된 모더니즘 운동 역시도 설계이념으로서 사회적 진보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세상으로서 전통적 가치의 회복과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뉴어바니즘의 지향점이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뉴어바니즘은 설계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유토피아적 사고의 연장에 있다. 이는 공상적 사회주의 이래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해온 공간 결정론적(spatial determinist)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교외지역이 천편일률적인 단독주택지로 구성됨으로써 계층 간의 분리를 가속 시켰다고 비판하는 뉴어바니즘은 구체적으로 소득 계층간, 인종간, 세대 간의 갈등을 주거유형과 평형의 혼합(social mixing)을 통해 완화시키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뉴어바니즘은 또한 ‘푸리에’식 사고의 연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공공공간은 마을 중심에 시빅센터(civic center)를 위치시키는 방법이나 주택을 가로에 바짝 붙여서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된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모더니즘적 접근에서 즐겨 사용된 격자형 가로체계가 중요한 설계원칙으로서 채용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격자형 가로체계 자체를 뉴어바니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Fulton, 1993).

#### (2) 뉴어바니즘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

뉴어바니즘은 모더니즘적 특징보다는 포스트모더니

즘적 특징을 훨씬 많이 갖고 있다. 첫째는 뉴어바니즘이 채용하고 있는 건축양식이다. 신진통주의가 추구하는 다양한 건축 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두아니는 뉴어바니즘의 다양한 건축양식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선호에 의해 이루어진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고객이 원할 경우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urns et al., 1997). 그러면서, 실제로 소수이지만 seaside에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이 건축된 예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두아니는 뉴어바니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충주의 혹은 풀라쥬 도시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 뉴어바니즘에서도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둘째, 상업주의 또는 시장에 대한 영합이다. Ellin(1996)이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형태는 돈을 따른다(Form Follows Finance)”.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태도는 고객중심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대중을 계도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모더니즘의 특징과는 대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주의적 예술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설계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뉴어바니스트들의 구호 역시 현실에서는 또 다른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Talen, 1999).

뉴어바니즘의 세 번째 특징은 공동체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것이다. 뉴어바니즘은 왜 공동체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회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좋았던 시절’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결국 뉴어바니즘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회고취향인 셈이다. 따라서 뉴어바니즘이 내세우는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모더니즘적 성격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낭만주의나 역사적 복고주의 그리고 상업적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네 번째 특징은 도시계획으로서 뉴어바니즘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① 뉴어바니즘은 모더니즘이 추구한 용도의 기능적 분리를 거부하고 용도의 혼합을 추구한다. 그 이면에는 직주근접의 실현이라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② 뉴어바니즘은 환경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적 수법이다. 모더니즘적 인식에 근거한 개발이 교외의 평면확산을 야기하고 토지자원의 남용과 녹지의 파괴를 초래했다고 보는 뉴

어바니즘은 고밀개발과 직주근접,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를 계획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하며, 단지설계에 있어서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습지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박영춘 · 임경수, 2000) ③ 뉴어바니즘은 역사적 보전과 커뮤니티 계획 방식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켄틀랜드의 경우 마을이 개발되기 전에 있던 과거 켄트 농장의 유적들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계획을 통해 상세한 도시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④ 뉴어바니즘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획가와 주민간의 대화를 중시한다. 켄틀랜드의 경우 설계사(DPZ)에서 파견한 계획가가 지역에 상주하면서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⑤ 용도지역제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마을 실정에 맞는 대안적 용도지역제를 개발함으로써 유클리드(Euclid) 용도지역제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urns et al., 1997)

(3) 소결

<표 7>은 앞에서 살펴본 뉴어바니즘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결국 <표 7>은 뉴어바니즘에서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모더니즘적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혼재된 뉴어바니즘의 지향점에서 매우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문제는 두 가지의 혼재된 특성 중 어느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물음인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뉴어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새로운 근대주의적 접근, 즉 후기 근대주의적 접근을 제시한 것인지, 혹은 근대성을 전면 부정하고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표 7.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시간적 지향성	• 보편성, 과거와의 단절, 물역사성	• 맥락주의, 회고적 복고주의, 역사성, 전통
공간적 지향성	• 보편성, 국제주의	• 맥락주의, 지방적 특성 강조, 장소성, 플라쥬 도시
사회적 지향성	• 이상주의, 평등, 해방, 진보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 완전한 세계의 추구, 과학과 이성, 국가권위의 의존, 관료적 접근	• 다원주의, 탈정치, 반유토피아주의, 반권위주의, 신보수주의

미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성, 순수주의, 표준화, 기계주의, 기능주의</li> <li>• 정치.사회적 목적으로서의 예술</li> <li>• 서민취향의 단순성</li> <li>•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li> <li>• 단순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Less is mo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주의, 장식, 새로운, 플라쥬, 은유, 절충주의, 익숙함, 대중주의</li> <li>• 상품으로서의 예술</li> <li>• 중상류층의 고급취향</li> <li>• 풍부한 것이 더 낫다 (More is more)</li> <li>• 단순할수록 지루하다 (Less is bore)</li> </ul>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 계량적 접근, 용도지역제, 자동차 중심, 마스터 플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설계, 혼합용도, 보행중심, 환경의 중시와 활용, 소규모 커뮤니티 계획, 주민참여, 의사 소통</li> </ul>

아래 <표 8>에서 보면, 뉴어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대응해서 모더니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후기 근대적 접근이라기보다 탈근대적인 포스트모던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뉴어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인 공동체 지향과 사회의식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장주의에 철저히 포섭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뉴어바니즘에 있어 공동체란 하나의 마케팅 차원의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더욱이 뉴어바니즘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가 사회적 진보보다는 역사적 복고주의와 낭만주의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뉴어바니즘을 진정한 근대주의의 추구로 보기 어렵도록 하는 측면이다.

표 8. 뉴어바니즘에 내재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지향점, 가치	공동체 주의, 공간결정론에 근거한 유토피아주의, 계몽적 행동주의, 권위주의의 단초	시장주의(상업주의), 낭만주의, 역사적 복고주의
계획 및 설계요소	사회적 혼합(다양한 주거유형과 형태), 공공공간, 격자형 가로체계	신전통주의, 혼합용도, 직주근접, 고밀개발, 대중교통과 보행중심, 환경중시, 역사적 보전, 커뮤니티계획(주민요구 청취 및 주민참여), 새로운 용도지역제
경관적 특성		다양성, 절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로서의 뉴어바니즘은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우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미화운동 이래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져온 미적인 측면에 대한 재발견을 들 수 있다. 미적인 측면은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보다 윤

택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물적 토대가 된다. 둘째는 환경 가치에 대한 중시이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교과서적인 언술이 되었지만 그 원칙을 도시차원의 세부적인 설계요소로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뉴어바니즘은 환경친화적 도시설계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뉴어바니즘은 많은 도시행정가들이 고민하는 도시마케팅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넷째, 뉴어바니즘은 모더니즘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들을 그 흐름속에 포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도시계획의 경직성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뉴어바니즘이 내세우는 사회적 슬로건이 현실에서는 상업주의에 의해 희석되어 있지만, 오히려 상업주의를 활용해서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혹자는 이것을 상업주의에 의해 포획된 도시계획의 모습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도시를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적인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다.

뉴어바니즘의 한계는 첫째 이 접근이 도시설계로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뉴어바니즘이 포스트모던한 접근임에도 근대주의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의의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설계기법적 측면에 보다 집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len, 1999). 둘째, 현실에서 일부 계몽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도로 인한 부작용 역시 자나친 과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주민참여와 소통(Communication)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본연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뉴어바니즘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서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 4. 은평뉴타운의 뉴어바니즘적 특징

은평뉴타운은 ‘리조트형 전원 생태도시 조성’과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그리고 ‘주거환경 수준의 질적 재고’를 설정하여 새로운 공동주거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기본계획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은평뉴타운 1지구는 1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용적률 150%로 계획하여 저밀도 주거단

지로 조성되어 있다. 단지를 관통하여 3개의 녹지축과 단지를 순환하는 순환녹지축(Green Ring)을 구성하는 녹지체계 및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산과 진관 근린공원, 서오릉 자연공원, 갈현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계하고 있다.



그림 12. 은평뉴타운 1지구 녹지축(左) & 하천축(右)

#### 4.1 은평뉴타운 1지구 도시가로체계

##### (1) 가로구성체계

은평뉴타운 1지구의 가로구성은 도시공간가로(Urban Street), 지구연결가로(District Street), 생활중심가로(Center Street), 근린연계가로(Neighborhood Street), 블록연계가로(Block Stre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공간적 성격이 명확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가로의 위계적 공간구성으로 가로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생활중심가로(CS)는 강한 축을 형성하여 생활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다. 커뮤니티 가로로서 차도폭이 좁으며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뉴어바니즘의 효율적인 격자형 가로체계와 다양한 위계의 가로가 존재하며 중심을 강조하는 가로체계와 보행자를 고려한 가로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 (2) 보행가로 구성

은평뉴타운 1지구는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산책길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블록을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 내 지구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생활중심가로(CS)에 저층부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며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보행가로구성에 있어서는 생활중심가로(CS)는 아케이드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활중심가로를 중심으로 3개의 선형녹지축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산책길과 연계되어 있어 지구를 연계 및 순환하는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행활성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뉴어바니즘의 보행우주의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 (3) 대중교통 접근성

1지구내 교통체계는 서울과 연계되는 광역버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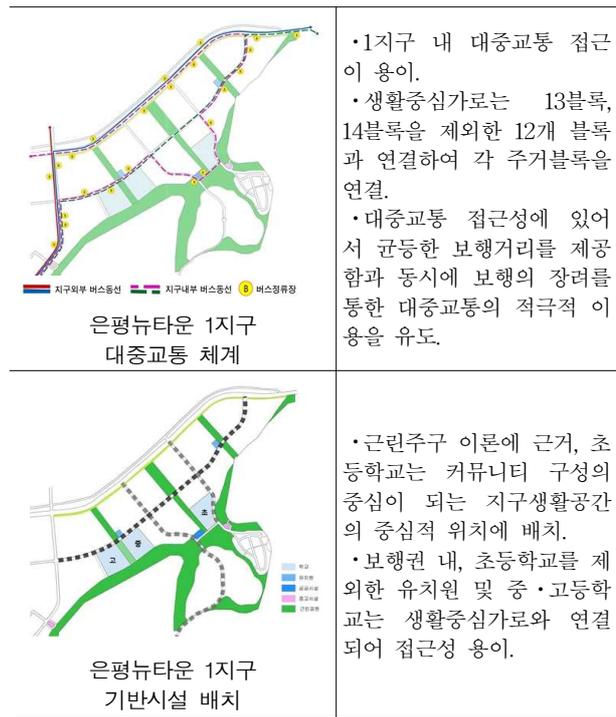
일반버스, 지구를 순환하는 순환버스가 있으며, 은평뉴타운 내 구과발역과 약 500m거리를 두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다.

생활중심가로(CS)는 13블록, 14블록을 제외한 12개 블록과 연결하여 각 주거블록을 연결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균등한 보행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행의 장려를 통한 대중교통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뉴어바니즘의 지구순환 교통체계를 근거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공공기반시설 배치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유치원 2개소, 공공시설 2개소가 1지구 내 3개의 선형 녹지축과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다.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교는 커뮤니티 구성의 중심이 되는 지구생활공간의 중심적 위치에 배치하여 중심생활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뉴어바니즘 이론의 학교배치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통적으로는 보행권 내 배치해 있었으며,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는 생활중심가로와 연결되어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 1지구 내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
- 생활중심가로는 13블록, 14블록을 제외한 12개 블록과 연결하여 각 주거블록을 연결.
-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균등한 보행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행의 장려를 통한 대중교통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

-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 초등학교는 커뮤니티 구성의 중심이 되는 지구생활공간의 중심적 위치에 배치.
- 보행권 내,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는 생활중심가로와 연결되어 접근성 용이.

4.2 소결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석결과 도시가로공간적 관점에서는 뉴어바니즘이론에 근거하여 지구의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가로의 위계에 따라 각 블록별 도시주거의 대응시스템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공통적으로 보행환경 중심으로 계획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블록계획 관점 분석결과, 가로의 위계 및 자연환경이 주거동 건축계획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블록 내부계획에서는 커뮤니티 및 보행자 중심의 공간구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평뉴타운 계획 특성을 바탕으로 뉴어바니즘 도시형 집합주거단지 계획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 가로위계에 의해 블록이 형성되었다. 지구에 구성되어 있는 블록의 특성은 그 블록을 감싸고 있는 위계적 가로 구성체계에 의해 그 특성이 형성된다. 그러나 공간의 위계가 단계적이지 못할 경우 그 블록은 지구 안에서 그 특성을 내포하기 힘들며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공적공간을 유용하거나 사적공간을 침해받는 결정구조를 내포한다.

둘째, 보차공존도로를 통한 도시가로의 생활공간화이다. 지구의 가로공간 구성체계에서 생활중심가로는 각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고 지구중심가로로 동선을

표 9. 은평뉴타운 도시가로 체계

다이어그램	특징
<p>은평뉴타운 1지구 가로구성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가로의 위계적 공간구성.</li> <li>• 생활중심가로는 강한 축을 형성하여 생활중심지가 형성.</li> <li>• 커뮤니티 가로로서 차도 폭이 좁고,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li> </ul>
<p>은평뉴타운 1지구 보행가로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중심가로는 아케이드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li> <li>•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행활성화를 구축.</li> </ul>

집중할 때, 도시공간구조의 틀에 부합하는 공간적 위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주거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의 가로를 보차공존도로 계획하여 가로공간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가로에 의한 블록 특성화이다. 블록특성화를 위한 가로의 유입은 블록의 단계적 공간구성을 형성하지 못할 때 도시공간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블록의 위계에 맞는 가로를 형성하고, 블록과 도시공간이 반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은평뉴타운 1지구는 생활가로를 유입하여 그 주변에 상가 및 외부공간을 연속시켜 가로의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였고, 생활중심가로와 연계하여 보행노드를 설치하였다.

넷째, 가로공간구조와 외부공간계획의 연계이다. 가로와 건축물에 의해 공간화되는 가로는 오픈스페이스와 연속적으로 관계 맺을 때, 가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조사결과 가로에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를 주차장 등의 저해시설로 활용할 경우 가로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연속된 외부공간체계로 인식될 경우 가로공간과 반응하여 연속된 공간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뉴어바니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해 모더니즘적 사고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살펴보면 첫째, 뉴어바니즘 자체에 모더니즘적 관점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이 혼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의 뉴어바니즘적 특징이 더욱 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혼재성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분리해 낼 수는 없다. 이는 도시형성의 맥락에서 상황에 따르는 분류만이 가능할 뿐임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뉴어바니즘은 모더니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후근대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탈근대적 접근에서 나타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특징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장주의에 포섭되고 있음을 3.2.3장 소결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뉴타운의 1지구에 관한 뉴어바니즘적 관점은 지구의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가로의 위계에 따라 각 블록별 도시주거의 대응시스템을 가지는 것, 주거블록계획 관점 분석결과 가로의 위계 및

자연환경이 주거동 건축계획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블록내부계획에서는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구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통적으로 뉴어바니즘의 '보행권내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은평뉴타운 1지구의 도시계획적 특성은 뉴어바니즘의 탈근대적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도시계획으로서 완전체적 도시계획이 아닌 일부만이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뉴어바니즘의 특징이 우리나라 신도시계획에 부합될 만한 사회적 근거와 회귀적인 도시로서 정서적 부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Ellin, N, Postmodern Urbanism,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6
2. Burns, C. et al, Urban or Suburban?, Harvard Design Magazine, 1. 1997
3. Moule, E, 제16조, 뉴어바니즘 협회, 「뉴어바니즘 현장」, 안영태·온건혁 옮김, 한울출판사, 2003
3. Oranje, M, Planning and the Postmodern Turn, Planning Futures, ed P. Allmendinger and M. Tewder-Jones, London: Routledge, 2002
4. Talen, E. Sense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Form: An Assessment of the Social Doctrine of New Urbanism, Urban Studies, 36(8), 1999
5. 이지혜, 뉴어바니즘이론에 근거한 도시형 집합주거단지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0.8
6. 김홍순, 뉴어바니즘, 근대적 접근인가, 탈근대적 접근인가?,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2호, 2006.8
7. 박영춘·류중석, 뉴어바니즘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16권 5호(통권139), 2000

논문접수일 (2012. 11. 21)

심사완료일 (1차 : 2012. 12. 6, 2차 : 해당 없음)

게재확정일 (2012. 12. 10)